

새로 나온 시집

그런 의미에서

임후성 지음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한 임후성 시인의 첫시집. 의식의 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무의식의 정체를 '뿌리', '물', '칼' 등의 시어로 끌어올린다. 물의 상상력을 통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세계를 포착하는 차가운 시선이 시 전편에 흐르고 있다. (338-7224) 문학과학사/B6신/134면/4000원

어머니

김신규 지음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온 가족의 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따뜻한 시어로 담았다. 시 동인 '창변'으로 활동한 저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화자로 등장시켜 고단하고 험했던 흘러간 시절을 구수한 황해도 사투리에 담아낸다. (718-0543)

창작과비평사/B6신/126면/4000원

북한기행

김철 지음

중국 민족문학작가회의의 기관지인 《민족문학》의 주필인 저자가 남녘엔 '풍요의 비극'이, 북녘엔 '빈곤의 비극'이 충만한 현실을 통탄하는 절규의 시편을 묶었다. 이 땅에서 풍요와 빈곤의 비극을 몰아내고 '죽음 아니면 통일'이라는 깃발 아래 달려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401-8543)

문학사상사/B6신/188면/5000원

한국행

최연흥 지음

30년 동안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망명생활' 같은 외국생활 속에서 느꼈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노래했다. 상황과 시대로 인한 불행을 통해 시인은 조국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리고 있다. (364-7871)

푸른숲/B6신/152면/4000원

넓은 기계

조기조 지음

'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노동자 시인 조기조의 첫시집. 세상의 험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운명을 직시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안은 건강한 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린 체험이 행간 속에 녹아들어 있어 시의 감동을 더한다. (322-2164)

실천문학사/B6신/124면/4500원

원미동 시집

유경환 지음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40주년을 맞아 출간한 기념시집. 동시와 동화를 써온 시인답게 저자의 시는 어른의 세계가 아닌, 어린이의 세계를 선한 아이의 숨결로 노래함으로써 맑고 순수한 서정을 살려내고 있다. (764-5057)

문학아카데미/B6신/118면/4500원

하늘 키재기

김형관 지음

대학에 합격했으나 백혈병으로 사망한 열여덟살 청년의 유고시집. 느닷없이 닥쳐온 죽음에 대한 예감이 담겨 있는 〈변명〉, 청년으로서의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실려 있는 〈나를 사랑한 만큼〉 등 스산한 죽음을 앞에 둔 청년의 내면이 진경을 이루고 있다. (358-6715)

동녘/A5/218면/5000원

이별에 관한 사색

박정희 지음

《현대문학》으로 등장한 박정희 시인의 일곱번째 시집. 〈이별의 슬픔과 아픔〉, 〈사랑했으므로 헤어졌네〉, 〈이별의 빈자리〉 등 이별을 주제로 한 11편의 시들이 실려 있다. (591-8267)

담계/B6신/126면/3000원

에로스가 속삭인다

알렉산드르 S. 푸슈킨 지음

자유와 사랑을 모티프로 삼은 러시아의 시인 푸슈킨이 1813년부터 1836년까지 쓴 연애시들을 모았다(고일 옮김). 이 시집에는 수많은 여성에게 짝과 격렬한 사랑의 시를 바친 시인의 열정과 영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335-2854)

작가정신/A5신/144면/4500원

모르다

이홍림 지음

《문학사상》에 〈못을 박으며〉로 등단한 이홍림 시인의 첫번째 시집. 등단작에서 화두



로 제기되었던 '열망, 세상의 틈새, 영혼의 틈새, 열망의 틈새'를 사로잡기 위한 몸짓들이 한권의 시집으로 묶였다. 이 시집에서 '열망의 틈새'에 놓인 또 다른 열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움', '자기 내부로의 망명'임을 보여주고 있다. (243-0801)

토마토/B6신/104면/4000원

지구촌에 주인은 없다

이선관 지음

'마산의 시인' 이선관의 환경시집. 75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시인 〈독수대〉로 자연 생태계와 환경훼손을 경고한 시인이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사색과 비판을 담았다. 거의 모든 시들이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과 공해문제를 다루고 있다. (3141-6553)

살림터/B6신/134면/4000원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박재삼 지음

'서러움을 가장 아름답게 성취한 시인'으로 평가받았던 작고시인 박재삼의 시선집. 〈울음이 타는 가을강〉 〈천년의 바람〉과 같은 서정시로 한국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시인이 죽을 때까지 추구해 오던 사랑의 시들, 병마와 싸우면서 남긴 삶과 죽음의 투쟁의 기록 등을 슬픔과 서러움의 미학에 담았다. (336-5494)

오상/B6신/156면/4000원

산이 내려와서

김세환 지음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추정〉으로 등단한 김세환 시인의 두번째 시집. 시인에게 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상징한다. 스승과 제자에 대한 사랑, 부모와 누이에 대한 애정, 삶을 바라보게 하는 구도물로서의 자연 등이 시인이 오르려 하는 이상향이다. (702-6119)

동학사/B6신/144면/4000원

그가 내 얼굴을 만지네

송재학 지음

제5회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한 송재학 시인의 네번째 시집. 사물과 언어들이 어떻게 결합할지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감각적인 언어로 거대한 이미지 덩어리들을 이루어 놓고 있다. 여행체험에서 비롯된 시편들도 전혀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를 가꾸어 놓는다. (515-2000)

민음사/B6신/96면/3500원

높이 올라간 것은 가볍다

윤경 지음

《심상》으로 등단한 윤경 시인의 처녀 시집. 순수한 인간존재를 억압하는 삶에 의연히 맞서서 순수함을 견지하고, 현실이 가하는 폭력과 억압에 대해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현실 자체 속에서 아름다운 존재의 공간을 구축하려 한다. (051-246-3436)

빛남/B6신/144면/4000원

맑은 시냇물

김구연 지음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구연 시인의 시집. '방울새는 어여쁜/산의 초인중'이라고 읊은 〈방울새〉, "어린시절은 지금 어디 갔을까/반짝반짝 빛나던 금빛 단추의 꿈"을 그리는 〈금빛 단추〉 등 맑은 동심으로 바라본 사물들,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노래하고 있다. (032-431-0268)

다인아트/A5신/182면/7000원

새벽별에 하늘 우러러

손길순 지음

《동양문학》으로 등단한 손길순 시인의 처녀시집.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절로

두터워지는 경지, 생활 자체를 만족해하는 가운데 오는 즐거움을 소박한 일상어들을 통하여 보여준다. (465-9888)
뿌리/B6신/126면/4000원

지금 우리는 키스하러 간다

심인보 지음

어느날 벼락처럼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한 남자가 매일 한장씩 그려 보낸 그림 엽서와 시를 모았다. 디자이너인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과 아름다운 시편들이 사랑의 지혜를 전한다. 매 시편마다 사랑의 재즈 명반 143장을 소개했다. (739-3330)

새로운사람들/B6신/208면/5000원

유토피아 없이 사는 법

서림 지음

《현대시》로 등단한 서림 시인의 두번째 시집.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이 합일되는 세계를 지향하려던 것에서 벗어나, 도시적 서정시를 통해 유토피아를 상실하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576-9854)

세계사/B6신/130면/4000원

그대에게 이별이 처음이 아니듯 내게도 이별이 처음은 아니랍니다

김미소 지음

《문예사조》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미소 시인의 처녀시집. 절망, 갈등, 선택 등 3부로 이루어진 이 시집에는 “이별은 연습이 필요 없지요/늘/아프고 외롭고 쓸쓸하여도/사람들이 사랑에 생명을 걸듯/나 역시 찾아오는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이별이 처음은 아닙니다”)처럼 이별, 사랑, 그리움 등 삶의 보편적인 감정을 일상의 평이한 언어로 그려가고 있다. (715-4507)

미래문화사/B6신/154면/3500원

그 사랑스러운 욕망이

추정자 지음

《풀풀거리는, 이과리》를 펴낸 시인의 두번째 시집. 저자는, 시인은 평범한 금속 속에 빠져 조개껍질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연금술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즉, 시인은 이상한 말을 녹여서 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말을 통해 꿈꾸는 시인의 꿈들이 어떻게 욕망으로 분출되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과 음악을 중요한 모티프로 삼았다. (051-248-3884)

빛남/B6신/110면/4000원

분명한 약속

이상개 지음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상개 시인의 다섯번째 시집.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시로써 형상화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시는 사람의 갈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시를 통해 시인도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는 시관이 담겨 있다. (466-2006)

전망/B6신/118면/4000원

내가 한 줄기 바람일 때

박선옥 지음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선옥 시인의 처녀시집. 인위적인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싱싱한 자연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세계에 대한 비판과 고발보다는 인생, 삶, 존재 등의 의미를 내재화시키는 한 인간의 진실을 만날 수 있다. (736-8320)

시와시학사/B6신/122면/4000원

아, 화개장터여

조총렬 지음

“짜가 가 판치는 요지경 세상을 비웃는 정치풍자 시집.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정치풍토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라는 흔들려도/끼리끼리는 호화판 생활 뻥한 것/아니꼬고 뒤틀려서도/돈 쓰는 후보는 짝지 말고 몰아내자”(《또, 대통령 선거 그러다간 다 깨진다》)처럼 직설적이지만 일반 서민들의 정서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923-2738)

가원/B6신/160면/3500원

가난한 날의 연가

손창환 지음

호텔 전기실의 필터공 출신 노동자가 삶의 체험을 시로 묶었다. 행복, 우정, 사랑 등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소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순한 애정, 신앙의 변화, 쾌락의 대상에 대한 관조 등을 통해 얻은 현장의 경험을 어눌하지만 순박한 언어 속에 표현했다. (779-2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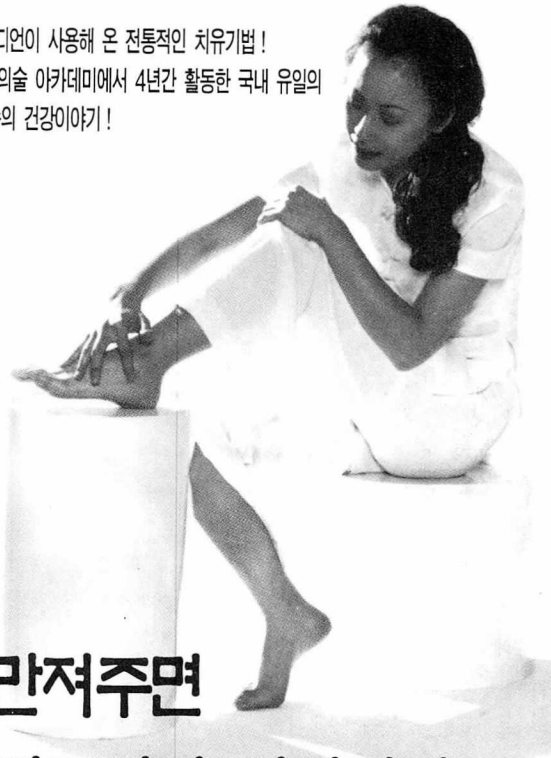
삶과꿈/B6신/126면/3500원

발을 만지는 여자

“발 반사요법 전문가” 정인수 이야기!

정인수 지음

고대 이집트, 중국, 미국 인디언이 사용해 온 전통적인 치유기법!
인도의 오소 라즈니쉬 국제 의학 아카데미에서 4년간 활동한 국내 유일의 “발 반사요법 전문가” 정인수의 건강이야기!



발을 만져주면 남편의 퇴근길이 빨라진다

발 반사요법을 행하면 말이 없어도 사랑의 손길이 발을 통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퍼져나간다.

- 휴식을 원하는 연인을 위해
-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해
- 어머니가 수험생 자녀를 위해
- 과도한 술과 스트레스 쌓인 남편을 위해
- 집안 일에 지친 아내를 위해
- 당뇨병 환자를 위해
-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명상과 함께하는 최상의 다이어트법 소개)
- 성기능장애 남·녀를 위해 (“발은 성감대다.”)



값 7,300 원

오소 명상법의 진수인 “다이나믹 명상”과 “쿤달리니 명상”도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병에 맞는 반사점 찾아보기’ 수록!
저자가 인도 푸니에 있을 당시, 발 반사요법으로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한 고객들의 일화들을 소개!

* 정신세계원 (☎ 747-7033) 10월 7일부터 저자 강의

세계의 여성들
• 전화 : (02)2650-124 • 팩스 : 278-6243